



「江刺金札米(에사시긴사츠마이)」산지에서 특정농업단체설립이 진전된 이유

－ 생산금액 비율의 이익분배로 성공 －

西村良平 (니시무라료헤이)

2007년도부터 농정개혁을 눈여겨보고, 품목 횡단적인 경영안정대책의 대상이 되는 「특정농업단체」가 연이어서 탄생했다.

그 설립경위 일원화가 필요하지만, 쌀의 판매수익을 조직에 일원화 하고, 그것을 면적비율로 각 농가에 배분하는 것에는 저항을 느끼는 농가도 적지 않다.

특정농업단체의 설립을 추진해온 岩手縣(이와테현) 江刺市(에사시시)(2월 20일부터 奥州市(오슈시))에서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해 내 놓은 것이 생산금액 비율로 분배에 의한 經理일원화 하였다.

● 東北의 쌀 산지에서 한번에 14개의 특정농업 단체 탄생

2007년 부터는 지금까지의 轉作조성금(산지형성 교부금)이나 大豆교부금, 맥작경영안정자금 등이 없어지고 품목횡단적인 직접지불이라는 보조금으로 일원화 된다. 조성「대상자」는 개별경영이면 4ha(北海道는 10ha)이상, 마을경영이면 20ha이상의 규모로 되어있다. 이 제도개혁에 대응해서 집락 경영에서는 법인화를 목표로 한 특정농업단체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岩手? 중남부의 江刺市(에사시시)에서는 2004년 4월에 14개의 특정농업단체가 市の 인증에 의해 설립되었다. 에사시는 밥맛이 좋은 「江刺金札米(에사시긴사츠쌀)」의 쌀산지.

원래 독립의식, 가족경영 지향이 강한 곳이었다. 그런 지역에서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의한 특정농업단체제도가 만들어진 겨우 반년 후에 이 만큼 많은 수의 조직이 생겨난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인증농업자 2명을 포함한 25호가 결성한 土谷(츠찌야)그린팜도 이러한 특정농업단체의 하나다. 마을에서는 1995년부터 2001년에 걸쳐 기반정비가

이루어져, 水利가 좋은 평탄지에 각농가는 0.5ha부터 1ha 정도의 대구획 논을 평균 1.1ha가지고 있다.

사무국장인 佐藤匡邦(사토우 마사쿠니, 1938년생)씨는 「쌀 정책개혁 大綱의 집락비전 만들기를 이야기 하는 가운데 집락영농의 법인화를 지향하는 방향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한다. 土谷(츠찌야)그린팜에서는 특별재배 쌀과 대두의 재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정농업단체로서 30ha의 農地集積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쌀에 대한 깊은생각이 반영되지 않은 시스템은 수용할수 없다.

특정농업단체의 요건은 一元經理에 덧붙여 농지 이용개선단체를 설립하여 집락의 농지2/3이상 집적을 목표로 하고, 그래서 5년 이내에 법인화 등으로 되어 있다.

一元經理는 경영조직으로서의 장부를 하나로 하는 것이다. 생산물의 판매에 의한 입금, 거기에 비료나 농약 등의 자재구입에 따른 출금을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된다. 결국 쌀이나 轉作의 대두, 맥류의 매상은 조직 전체의 것으로 해서 일괄



로 통장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것을 각 구성원에게 나누는 것은 작부면적에 대응하여 분배하는 형태가 생각되어질 수 있다. 집락에서 공동작업을 해서 經理를 一元化 한다면 면적비율에 의한 단순명쾌하게 알기 쉽다.

블록 로테이션으로 작업수탁에 의해 재배하는 轉作 대두·맥류의 매상을 분배한다면 이 면적비율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쌀 이라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없다.

쌀의 재배에는 집락에서 공동으로 경운·씨레질, 모심기, 수확의 3가지 기본작업을 하는 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다. 施肥나 방제도 조직으로서 결정한 방법으로 각자가 추진하고 있다. 농업공제도 함께 가입한다. 모든 것이 같다면 면적비율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자신의 논의 흙만들기는 각자 힘을 기울여 하고, 생육관리에도 독자적인 공리를 집중시켜 왔다. 수도작에는 대두나 맥류와는 다른 깊은 생각이 있고, 같은 넓이의 논이라도 수확량에는 차이가 있다. 그것을 면적비율로 배분하는 것은 매우 큰 저항감이 있기 때문이다.

土谷(츠찌야)그린팜사무국장인 佐藤匡邦씨는 그것을「농민감정」이라고 표현했다. 2004년 가을, 쌀 수확을 목전에 둔 시기가 되어 논은 한 배미 한 배미 그 가치가 다르다는 목소리가 크게 났다.

● 수확목전, 어떻게 생산금액을 반영시킬 것인가

JA江刺市영농추진과장 及川(오요카와)씨는 「그곳을 무시해서 경리의 일원화를 면적비율로 밀어 부치면 아마도 바로 창립된 특정농업단체는 분규가 일어나 수습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논 마다 쌀의 단위당 수확량이나 가격의 차이에 착안한다면 매상을 각 구성원의 논마다의 생산금액에 맞추어 분배하는 방식에 도달한다. 면적비율로부터 생산금액 비율로 이행하는 案이 우세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때 이미 2004년도산의 쌀은 특정농업단체가 일원화하여 농협에 판매하고, 조직의 것으로 해서 컨츄리엘리베이터나 라이스센터에 입고되도록 결정되었다. 판매대금은 개인의 통장이 아니라 특정농업단체의 통장에 기장되도록 진전되었다. 거기에는 개인마다의 이름이나 금액은 일절 나타나지 않는다.

면적비율로 대응한다면 이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총액을 각 개인의 면적 비율로 계산해서 분배한다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각의 논마다의 생산금액으로 분배하려고 한다면 특정농업단체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어떤 농가 논의 쌀이 되는지 확인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 개인마다의 출하번호를 조합한 전표관리로 해결

거기에서 특정농업단체 아래에 각 개인의 번호를 매기기로 했다. 예를 들면 A씨는 「1」, B씨는 「2」, C씨는 「3」---이라고 하는 방식의 분류번호를 준비하여 출하할 때 전표를 기장한다. 컨츄리엘리베이터나 라이스센터에서는 그것에 의해 물건을 받도록 한다. 특정농업단체의 사무국은 그 전표를 단서로 각각의 생산금액을 확인하고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누가 출하한 쌀의 몫인가 나누어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다.

농협에서는 특정농업단체별로 구성원의 분류번호를 준비하고 각 개인의 생산금액 데이터의 리스트를 특정농업단체에 전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컴퓨터 시스템에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스템의 변경작업에는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오요카와 과장은 「수확을 대비하여 시스템의 변경으로 왓지떨 했다. 土谷(츠찌야)그린팜 사무국장 사토우씨로부터 『벼 베기가 시작된다. 빨리해라, 빨리해라.』라고 재촉 받았다. 겨우 마지막 순간

에 마쳤다」고 한다.

사토우사무국장은 팜의 통장에 수시로 입금된 금액과 리스트를 조회하고 25명 구성원의 통장에 생산 금액에 대응한 금액을 입금시키고 있다. 팜으로서의 필요한 경비를 뺀 금액을 분배한 것이 각자의 수취액이 된다. 이것으로 각 구성원이 이 소유한 논 의 수량이나 등급에 대응한 소득이 확보되는 것이다.

오요카와 과장은 「공동으로 작업을 한다고 해도 각자의 노력이 반영되지 않고서는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좋은 형태로서 경리의 일원화가 완성되었다. 이것으로 조직으로서의 활동도 하기 쉽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이 분류번호 방식이 수확시간에 맞출 수 있었던 것은 원래 구성원 전원이 출하를 위해 개인번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것을 이용하여 각 특정농업단체에 부여한 번호와 연계시켜가는 방법이 취해 졌다. 江刺市の 14개의 특정농업단체 가운데 면적비율을 선택한 1개의 단체 이외는 생산금액의 형태로 합의하고 모든 조직에서 경리의 일원화가 실현되었다.

●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 세무처리는?

다만, 경리의 일원화는 이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다. 또 한 가지의 큰 과제는 세금이었다.

농협이나 시청 등의 농업관계기관이 설립되어 지금 부터의 집락영농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江刺市농업활성화센터」에서는 특정농업단체를 대상으로 그 운영에 대한 설명회를 몇 번이고 들었다. 세무처리도 주제가 되었지만, 특정농업단체는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가 되는 전례가 없다. 어떤 형태로 과세되어지는지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사의 협조를 받아 가며 대책을 검토해 왔다.

농업법인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과도적인 조직인 특정농업단체는 임의 조직이고, 납세에 있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인가를 세무서가 판단한다.

첫 번째는 「임의조합」으로, 구성원(개인)에게 모든 분배를 하여 개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되고, 조직에는 과세가 없는 형태가 된다. 조직으로서는 자산도 0, 농기계를 구매해도 구성원의 分有로 감가상각도 거기에 맞추어 분할된다. 임의조합은 집락에서 자신들의 농지 등을 가지고 참여하고, 수확물은 분배한다고 하는 공동작업의 조직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인격이 없는 社團」(사람으로 간주하는 법인)으로 세무서에 사업개시 신고가 필요하다. 조직에는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구성원(개인)에게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조직이 되면 수입이 많게 되므로 소비세의 과세기준(매출액이 1000만엔 이하는 과세되지 않음)을 초과하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비교검토의 결과 江刺市の 특정농업단체는 「임의조합」이 되도록 조직의 규약을 변경해 왔다.

土谷(츠찌야)그린팜에서는 보급센터가 개량을 더해가면서 만든 퍼스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토우사무국장이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조직의 회계는 구성원마다 쌀이나 대두의 판매금액과 경비, 공동작업에 지출된 수당 등을 집합시킨 형태로 된다. 그곳으로 부터 「분배계산서」를 작성하고 25명 전원의 각자 분을 잘라서 분배해 가면 각각이 세무신고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收支一覽이 된다. 각 개인은 이것이 한 장의 종이에 프린트 된 것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납세 신고서에 첨부하면 좋다. 이것으로 신고작업을 경감시키고 구성원은 기뻐할 것이다.

● 주목을 받는 「江刺型 經理 一元化」

집락경영을 추진하는 江刺市농업활성화센터의 佐藤俊喜씨는 「江刺에서 특정농업단체의 일원경리의 과제를 해결한 일이 신문에도 소개되어 전국으



임의조합으로서 세무처리를 위한 손익분배표 예(00영농조합)

항 목	영농조합계	1	2	2	10	
		A씨	B씨	3C씨	J씨	
생산성적	쌀작부면적	3,000	300	200	300	100
	쌀 수 량	153,000	15,000	11,000	16,000	600
	쌀 단 가	250	270	280	250	250
	대두작부면적	780	80	40	100	0
	대 두 수 량	9,400	1,200	800	1,400	0
	대 두 단 가	200	200	200	200	200
매 상 고	수 도	40,805,100	4,252,500	3,234,000	4,200,000	157,500
	대 두	1,974,000	252,000	168,000	294,000	0
	작 업 위 탁	3,400,000	210,000	0	200,000	150,000
	보 전 금	0				
	장 려 금	1,400,000	150,000	100,000	180,000	0
	합 계	47,579,100	4,864,500	3,502,000	4,874,000	307,500
경 비	종 묘 비	0	0	0	0	0
	비 료 대	0	0	0	0	0
	농 약 대	0	0	0	0	0
	제 재 료 비	125,000	20,000	15,000	20,000	10,000
	작업위탁비	2,970,000	210,000	180,000	210,000	180,000
	동력광열비	0	0	0	0	0
	공 제 부 금	0	0	0	0	0
	사무처출금	2,145,000	385,000	270,000	350,000	70,000
	부 답 금	0	0	0	0	0
	판 매 경 비	0	0	0	0	0
	사무수수료	10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도서연수비	10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합 계	5,440,000	635,000	485,000	600,000	280,000
수 익	42,139,100	4,229,500	3,017,000	4,274,000	27,500	

↓
A씨가 세무신고하기 위한 수지일람이다.

※ 이 분배표는 연도 도중부터 특정 농업단체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가 0으로 되어 있다. 이미 개인으로 예약구매 했기 때문. 다음 해부터는 총액이 각 농가에 배분된다.

로부터 1주일에 3회 정도 시찰단이 오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생산금액비율에 의한 「江刺型 經理一元化」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특정농업단체로서의 체제를 정비한 土谷(츠찌야) 그린팜에서는 특별재배 쌀에 열중하고, 대두는 盛岡市の 두부제조업자가 요구하는 품종(隆峰)의 재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 두부를 구입하고 있는 생협의 소비자들을 초청하여 교류도 추진하게

되었다.

土谷(츠찌야)그린팜사무국장인 佐藤匡邦씨는 「새로운 경영의 형태를 만드는데 있어서 무리한 것이 발생하면 침착하게 파고들어 납득 가능한 형태를 만든다. 여기가 분발해야 하는 곳이다. 지금은 농업의 큰 전환기. 자신들로부터 대답을 발견해 가는 시대이다.」라고 말한다. (일본 현대농업 2006년 3월호에서 발췌 번역 - 본회 편집부)